



###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가야의 불탑과 불상은 어디에 있을까?

# 인도서 도래...일본·중국 등에 전해져

#### 1. 제4의 제국 가야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와 달리 가야의 실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아마도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일찍 신라에 합병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일제가 반도를 지배하면서 가야의 역사를 조작하거나 지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야 역사는 7백년에 이르며 그 문화적 성취도 삼국에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았다. 초기 신라와 같이 6부족 연맹체를 이루었지만 금관가야를 맹주로 하는 연맹체였고, 금관가야의 왜가야 이주 이후는 대가야가 그 맹주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일찍부터 철기로 무장하여 뛰어난 문명과 문화를 일구었으며 뛰어난 조선술로 일찍부터 왜가야(야마토)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김수로왕의 딸 비미호(卑彌呼) 공주는 어머니 허황옥이 배를 타고 가야에 도달했듯이 그녀 역시 일찍부터 큐슈로 진출하여 야마타국을 세우고 여왕으로 재위하였다. 허황옥의 딸인 비미호의 공주는 바다를 끼고 있는 가야의 임지를 지혜롭게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가야를 고구려와 백제 및 신라에 맞서는 제 4의 제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였다. 모녀는 2천 여 년 전 이미 동북아의 해양 실크로드를 장악하였다. 그들에게는 바다영토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었다. 공주의 큐슈 진출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였다. 하지만 지난 세기 이래 일본과 중국은 우리의 역사를 반도에 가두려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했으며, 중국은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키기 위해 남북한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벌이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스스로 한국령이라고 인정했던 독도를 빼앗기 위해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를 자기의 해상영토 속에 편입시키려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 조작은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일본보다 한국의 부산에 더 가까운 대마도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아 한반도에 편입되어온 한국땅이다. 대마도가 일본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대마도의 여러 기록들이 보여준다. 오키나와(甯球)국 역시 고려 삼별초 세력이 여몽연합군에 밀려 내려가 세운 나라라는 것은 이미 정설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실존적 지배라는 차원에서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담을 수는 없는 것이다.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 2년(414)에 고구려 옛땅 집안현에 세운 '국강상광개토호태왕비(國?上廣開土好太王碑, 6.4미터, 4면 1775자)에는 애초부터 "원래 백제와 신라는 우리들(고구려)의 속민으로서 항상 조공을 바쳐왔는데 이후 신묘년(辛卯年, 391)에 조공을 바치지 않으므로 백제와 왜국, 신라를 쳐서 이겨 신민으로 삼았다"(李

進熙, 李亨求 해석)고 적었다. 그런데 일본 메이지(明治)정부의 군부는 육군참모본부의 첩보 제리(提理) 가즈라 국장과 첩보원 사코오 중위를 시켜 비문 속 '내도해파(來渡海波)'의 주체를 바꾸어 "왜, 즉 일본이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쳐서 신하로 만들었다"고 조작하였다. 그런 뒤에 가야와 백제들을 쳐서 신하로 만들고 경상남도 일대에 설치했다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설'을 퍼뜨렸다. 군국주의의 한반도 지배전략에 의해 가야가 왜에 진출하여 왜가야를 지배한 역사의 팩트(사실)를 뒤집은 것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기술된 취희(吹希)왕-질지(知)왕-구형(仇衡)왕 등은 금관가야의 적손(嫡孫)이 아니라 부산 북천동 일대에서 종래의 기독교를 가진 수장이었을 뿐이다. 일본 교토 인근의 응신천황(이시품왕)릉과 인덕천황(4자 인덕)릉은 모두 제4의 제국 가야 황제들의 무덤들이기 때문이다.

#### 2. 금관성 파사석탑

금관가야의 수도는 김해였다. 호계사에는 오래 전부터 파사(婆娑)석탑이 전해져 왔다. 이 석탑은 옛날 이 고을이 금관국이었을 때 시조 수로왕의 왕비 허황후 황옥이 동한 건무 24년(48)에서 서역의 아우타국에서 배를 타고 온 것이다. 처음에 공주가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동쪽으로 향하다가 파신(波神)의 노여움으로 건너지 못하고 돌아와 부왕에게 아뢰었다. 부왕은 '이 탑을 배에 싣고 가라'고 하였다. 공주는 이 탑을 배에 싣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 금관국의 남쪽 물가에 와서 닿았다. 이 배는 붉은 돛에 붉은 깃발을 달았으며 아름다운 주옥(珠玉)을 싣었다 해서 지금도 주포(主浦)라고 하였다. 공주가 능직 비단 바지를 벗은 곳을 능현(綾峴)이라 하며, 붉은기가 처음 들어오던 바닷가를 기출변(旗出邊)이라 하였다.

『삼국유사』 「탑상」편의 '금관성 파사석탑' 조에서 일연은 당시 가야에는 불교(佛敎)가 전해지지 않아 이 땅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가락국본기』에는 절을 지었다는 기록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실린 『가락국기』에는 수로왕이 김해의 가궁(假宮) 남쪽 신담평(新沔坪)에 행차하여 도읍을 정하려 할 때에 "16나한이 거주할만한 곳"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실려 있다. 나한은 불교의 수행자 가운데 학문과 덕행이 가장 높은 성자를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16나한은 불교 전통에서 수행이 뛰어난 열 여섯 명의 아라한을 가리킨다. 수로왕은 신담평을 바라보며 "하나라에서 셋이 되고 셋에서 일곱이 되니 칠성(七聖)의 거주지라도 여기가 합당하다"며 이곳에 의탁하여 강도를 넓히는 것이 참으로 좋지 않겠는가"라며 도읍을 정하였다. 『가락국

기』는 일연이 고려 중기 금관주지사였던 김양일(金良溢)이 적은 것을 줄여서 전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절을 짓거나 불법을 받드는 일이 없었다"고 표현은 맞을 것이다. 현전하는 기록상 가야의 절은 질지왕이 세조와 허황후의 명복을 빌고자 그들이 결혼했던 곳에 황후사를 지었고(452) 전담 10절을 바친 것이 가야불교의 공인년인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열 여섯 나한'과 '일곱 성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칠성'은 칠성인(七聖人) 또는 칠성자(七聖者) 혹은 칠장부(七丈夫)라고도 하며 불교의 삼도(三道) 수행위에서 성자를 일곱 가지로 나눈 것이다. 세 가지 수행위는 '진리의 발견' [見道位]과 마음의 수련 [修道位] 및 수행의 완성 [阿羅漢位]을 가리킨다. 그리고 칠성은 믿음을 따르는 수행 [隨信行], 진리를 따르는 수행 [隨法行], 믿음과 이해 [信解], 지견의 지극함 [見至], 몸의 깨달음 [身證], 지혜의 해탈 [慧解脫], 모든 해탈의 구족 [俱解脫]에 이른 성자를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가야에는 이미 불교가 전래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금관성 파사석탑'에는 허황후가 싣고 온 '파사석탑은 사면으로 모가 나고 5층인

### 일찍이 바다영토까지 눈여겨 파사석탑은 인도불교 도래 증거 뛰어난 조선술, 철기문명 지녀 동아시아 해상제국 건설

데 그 조각이 매우 기이하다. 돌에는 조금씩 붉은 반점이 있고, 석질이 매우 부드럽고 좋아서 이 땅에서 나는 종류가 아니었다"고 하였다. 이 탑의 재질이 이 땅 가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매우 기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보면 이것은 이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짐작된다. 이 탑이 있던 호계사는 김해의 호계천변에 있었다. 1873년에 이 절은 없어졌고 이 석탑은 현재 김해 구산동에 있다. 허황후 역시도 서역 아우타국에서 왔다면 가야불교는 이미 서역 아우타국에서 불교를 가져온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야는 이미 허황후를 통해 불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파사석탑은 현존하는 유일의 가야탑이라고 할 수 있다.

#### 3. 신어사와 만어사 그리고 칠불사

현재 김해 수로왕릉의 정문에는 쌍어문(雙魚紋)이 걸려 있다. 쌍어문은 물고기 두 마리를 새긴 문양이다. 대개 사당의 문 또는 비석의 지붕돌에 새겨 있거나 사찰의



김해 수로왕비릉에 자리잡고있는 파사석탑. 석재는 외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문 혹은 대웅전 수미단 등에 그려져 있다. 예로부터 김해의 신어사와 만어사의 문에는 이 문양이 있었다고 한다. 두 마리 물고기를 새긴 이 문양은 고대 인도의 아요디(아시)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근래 김해시는 인도 남부 아요디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곳에 5만평에 이르는 가야공원을 조성했다 한다. 아요디아는 태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지만 지금은 인도로 정착되어 가는 까닭은 인도 아요디아 지역에 쌍어문이 널리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쌍어문은 인도에만 나타나지 않고 동남아를 비롯하여 중국과 가야 일대에 보이고 있어 해상과 육상을 타고 널리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남 하동군 쌍계사 뒷 편 산 자락에는 칠불사가 있다. 칠불사는 1세기경에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그들의 외국인 범승(梵僧) 장유보옥(長遊寶玉) 화상(和尙)을 따라 이곳에서 동시 성불한 것을 기념하여 김수로(金首露) 왕이 국력으로 창건한 사찰로서, 가야불교의 발생지

이다. 『가락국기』에는 "수로왕은 서기 42년에 화생(化生)하였으며, 남해바다를 통해 가락국에 온 인도 황하 상류의 태왕왕조인 아우다국 허황옥 공주를 왕비로 맞아 10남 2녀를 두었다. 그 중 장남은 왕위를 계승하였고, 둘째와 셋째 왕자는 어머니의 성을 이어 받아 김해 허씨(許氏)의 시조가 되었다"고 전한다. 그 뒤 이들 일곱 왕자는 외국인 장유화상을 따라 출가하였다. 그들은 장유화상의 가르침을 받으며 가야산에서 3년간 수도하다가 의령 수도산과 사천 와룡산 등을 거쳐 서기 101년에 이곳 지리산 반야봉 아래에 운상원(雲上院)을 짓고 정진한지 2년 만에 모두 성불하였다. 칠불의 명호는 금왕광불(金王光佛), 금왕당불(金王幢佛), 금왕상불(金王相佛), 금왕행불(金王行佛), 금왕향불(金王香佛), 금왕성불(金王性佛), 금왕공불(金王空佛)이다. 이 일곱 왕자의 성불로 인하여 칠불사라 하였다고 전한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미루어 볼 때 가야 제국은 부여로부터 이주해 온 뒤 바다영토

를 개척하여 제국의 토대를 굳건히 하였다. 뛰어난 조선술과 뛰어난 철기문명을 통해 해상과 대륙을 넘나들며 대 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가야는 동아시아의 해상세력을 주도할 수 있었다.

가야는 왜국이 처음으로 인식했던 외국이었다. 가야인들이 주로 이용한 항로는 『삼국지』 「위지」 왜인전에 나타난 것처럼 구아한국(김해) - 쓰시마(對馬島) - 이키(壺埵) - 이토(怡土)국을 경유하는 루트였다. 왜국에서 대륙으로 건너올 때에도 반드시 쓰시마를 거쳐 낙동강 하구인 김해 부근에 도착했다가 다시 다도해를 거쳐 황해로 빠져 나가 낙랑이나 대방에 도착하였다. 때문에 구아한국은 이들의 중간 기착지가 되었다. 당시 김해항 인근은 모두 바다였는데 근래에 간척사업으로 인해 육지로 바뀌었다. 이외에도 가야인들은 이즈모(出雲) 항로도 자주 이용하였다. 이즈모 항로는 한구 동해나 남해에서 리망한류를 타고 북위 30도 부근에서 쓰시마 해류 서파(西波)를 횡단하여 분류를 이용해서 이즈모 서안의 이나사노오마(伊那佐之濱)에 이르는 직접 항로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서북풍이 불기 때문에 이 항로를 자주 이용하였다.

가야제국은 이들 항로를 이용하여 북 큐슈나 이즈모 지방을 왕래하였다. 이러한 항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가야의 뛰어난 조선술 덕분이었다. 바다를 제패한 가야제국은 앞선 철기문명에 힘입어 뛰어난 조선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이 조선술에 힘입어 일본열도와 중국 대륙에 있었던 낙랑과 대방 등지를 자유로이 왕래하며 무역을 하였다. 이들의 일본 진출은 4세기 경에 조선된 고분문화 유적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일찍이 한반도에서 전래된 스에기(須惠器) 토기는 북큐슈와 간키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생산되었다. 또 가야인들의 왜나라 이동으로 인해 당시의 [鐵鏡]가 북 큐슈와 간키지방에 전해지면서 왜가야에서도 철정을 사용하여 철기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고대 가야제국과 왜나라는 하나의 문명권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이병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민족사, 2005; 2007).
- 이중기, 『가야공주 일본에 가다』(책장, 2006).
- 김경복·이희근, 『가야는 신비의 왕국이었다』(청아출판사, 2001).
- 김태식, 『미연의 문명 7백년, 가야사』(1,2,3(푸른역사, 2002).
- 김정환·이주현, 『철의 왕국 가야』(국립중앙박물관, 2006).
-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범어가 담긴 에코컵) 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항스님의 범어!

도자기  
범어가 담긴 에코컵

series 1. 마음 series 2. 대장부

종류	구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 음 범어: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범어: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사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헨프오일비누  
1개 10,000원